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김장나눔 행사



전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는 최근 목포 하나로 클럽 주차장에서 전남지역 사회복지 시설 담당자 및 목포지역 중·고생 550명과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제공>

김낙희 관세청장, 광양·목포세관 방문



김낙희 관세청장이 2일 광주본부세관과 목포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 무역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박홍식 비아농협 조합장 대통령상



박홍식(사진) 비아농협 조합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박 조합장이 농업재해대응에 탁월한 공을 세워, 광주시 광산구 정례직원조회를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4선에 걸쳐 비아농협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생산기반 정비·확충 및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2013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시설하우스 단지의 농수로 시설을 정비했음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자연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질의 자재로 비닐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도록 자체 구입금액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농업재해대응 분야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지방예산 효율화' 국무총리상



광주시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 찜주치장' 사업을 제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선 모두 124건의 제출절감·세입증대·기타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업이 제출됐다.

북구의 찜주치장 조성사업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도심 속 홍물로 전락한 폐·공가 등을 찜주치장으로 조성한 뒤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 주차장 운영 인건비 등 연간 2억3000만 원의 세출절감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손영조씨, 일반인 첫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오세아니아 칼스텐즈 올라... 14년만에 도전 완성

산악인 꿈 위해 대기업 생활 접고 고향 전북형

덕유산공원관리사무소 다니며 지리산 등서 훈련

"14년간의 긴 도전을 성공리에 마쳐서 기쁩니다."

전북 무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에 근무하는 손영조(48)씨가 일반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직장생활과 해외원정 등반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해 지 14년 만이다. 손씨는 지난 10일 마지막 대륙인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스텐즈(4884m) 출정 길에 올라 열흘 만인 20일 오전 9시께 등정에 성공했다.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동안 심적인 부담과 불안, 초조, 번민이 한번에 싹 씻겨 내려갔다"며 "특히 정상에 오를 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14년간의 고생을 위로해 주듯 칼스텐즈 정상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정상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등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베이스캠프로 가기 위해 일주일간 해냈던 정글과 마지막 정상 등정을 위한 800m 암벽 등반을 꼽았다. 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손씨는 "칼스텐즈는 등반도 힘들지만 일단 베이스캠프로 가는 과정이 힘들다. 정글을 열대성 기후의 번듯스러운 날씨 속에서 일주일간 헤쳐나가야 한다"며 "벌레와 소나기성 비는 지금 생각해도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고 정상

을 위해 올라야 하는 800m 암벽도 1박 2일 일정으로 가야 할 만큼 험난했다"고 이번 등반의 난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공무원인 손씨는 2001년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해발 5642m) 등정을 시작으로 2003년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해발 6959m), 2004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해발 6194m), 2005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해발 5898m), 2008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m), 2010년 남극 최고봉 빈센메시프(해발 4895m)를 등정했다. 이번에 오세아니아의 칼스텐즈까지 도전을 마치는 데까지 14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그는 "첫 도전 당시 초등학교에도 들어가 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됐다. 직장생활과 산악등반을 병행하다 보니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며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과 항상 장기간 휴가를 떠나는 동료들 이해해 준 직장동료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내에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산악인은 엄홍길씨와 고(故) 박영석 대장, 오은선·박영미·허영호씨 등 전문 산악인 중에서도 몇몇 되지 않는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일반인은 손씨가 최초다. 그는 산악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잘 다니던 대기업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향인 전북으로 내려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하며 지리산과 덕유산 등 전북지역의 산을 오르며 틈틈이 훈련을 이어왔다. 30대에 시작한 도전을 50세가 다 되도록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손씨는 "아직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에 오를 때가 많이 생각난다. 휴가 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한 등반을 하다가 크레바스(crevasse·만년설이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다"며 "목표를 이루고 나니 예전 등반하던 기억이 어찌 일처럼 생생히 떠오른다"고 말했다.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다고 밝힌 손씨는 앞으로 도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칼스텐즈에 올랐을 때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나이도 오십 줄에 들어섰고 10년 넘게 이것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목표가 사라져 막막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손씨는 "짐을 정리해 칼스텐즈를 떠나오면서 나이에 맞는 도전은 어디에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마음을 추슬렀다"며 "우선 휴식시간을 좀 갖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 또 다른 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저소득층 가정에 생필품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2일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김종용 기아차 광주공장장과 이기곤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이날 노사를 대표해 광주공장 연구동 앞에서 전달식을 갖고, 겨울용 이불과 라면, 김, 참치 등 생필품을 담은 7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 1000세트를 임우진 광주지

서구청장과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이 끝난 뒤 광주공장 임직원은 직접 서구 관천동의 수혜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사랑의 선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청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문정여고 '전통 성년례' 실시

문정여자고등학교(교장 심재택)는 최근 학교 강당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계례)'를 실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성년례는 문정여고의 문화예술 특색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성

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역할 수행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이번 성년례는 성균관여성유도회 광주시본부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선은 남부대 교수 '농촌 재능 나눔' 장관상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최선은 교수는 최근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4년 농촌 재능 나눔' 시상식에서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농촌 재능 나눔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자금을 고취하고, 재능기부활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나성수(함평경찰서 학교지구대장)·이양숙(한상차림 대표)씨 장남 상혁(LG 화학 여수공장)군 최정숙씨 차녀 정은영(목포시교육지원청)양=6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농성동 매종트르네르 5층 그랜드볼룸(옛 꿈의 공전 웨딩홀).

▲변상원·이현옥씨 장남 성환 군 박성호(남도일보 사장)·고광심씨 장녀 인정양=6일(토) 오후 1시20분 광주 수어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배용순(농협진도군지부 진도군출장소장)·조진숙씨 차남 슬기(포항 스틸러스)군 오병노·이금옥씨 장녀 헤기양=6일(토) 오후 2시 서울파티오나인5층 재플홀.

▲서현기(광주송일고 교장)·김정화(송일중)씨 장남 희근 김종근·김미숙씨 장녀 지수양=6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교원공제회관 3층.

▲소수숙·김정희씨 장남 원창군 박승도·한혜경씨 장녀 희정양=7일(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3-5 개럴라인

빌딩 02-512-1636 피로연 29일(토) 오후 5시 광주 KT컨벤션웨딩홀 062-232-0700.

동창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황명성)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3일(수) 오후 7시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 5층 대연회장 062-384-7447.

▲재광 매산고등학교 송년의 밤=4일(목) 오후 7시 광주 서구 농성동 신정.

▲목포고 제5회(회장 이규중) 정기총회 월례회=4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광주송일고 25회 송년의 밤(회장 김방수)=5일(금) 오후 6시 30분 Y웨딩컨벤션 컨벤션홀 010-8950-3366.

▲광주상고 28회(회장 윤중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5일(금) 오후 6시 30분 CMB 광주방송 컨벤션센터.

▲광주여상고 총동문회(회장 김경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8일(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서구 농성동 알펜시아웨딩홀 062-361-1233.

중친회

▲경주 김씨 중친회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진주 강씨 광주·전남중회(회장 강원구) 세미나=9일(화) 오후 2시 영광예술회관 062-228-3368.

알림

▲습관성도박차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

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하반기 전문봉사단육성교육(종이접기·핸드마사지) 수강생 모집 분야별 15명(선착순) 교육일정 : 12월 둘째 주부터 주1회(목·금). 문의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최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조영복 님(남/88세) 子/子婦 : 조관영/이미경, 조관성/홍혜미 女/婿 : 조민숙/양영근 *발 인: 12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안지현 님(여/65세) 子/子婦 : 김종민/고영삼, 김종석 女/婿 : 김종미/기운태 *발 인: 12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 故나운상 님(남/78세) 子/子婦 : 나민수/김정숙, 나민영/고은미, 나민승/최미영 女/婿 : 나민숙/박기철, 나경숙/이승현, 나현숙/김미영 未亡人 : 박미숙 *발 인: 12월 3일 *장 지: 남력선영 *연락처: 227-4381	402호 故김경옥 님(여/53세) 子 : 김한미부 女 : 김고우리 夫婿 : 김승권 *발 인: 12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